

“지역구 의원, 전북서 배출해 달라”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전북서 상무위원회
“재생에너지 등 확대
전북을 그린뉴딜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것”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55일 앞두고 전북을 찾아 “지역구 국회의원을 전북에서 배출해 달라”고 호소했다.

심상정 대표는 20일 중앙당 상무위원들과 함께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을 찾아 상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12.88%의 지지를 보여준 전북에서 총선 정의당 돌풍을 일으켜 달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심 대표를 비롯해 김종민 부대표, 김용신 선대본부장 등 중앙당직자와 정상모(남원·임실·순창), 권태홍(익산), 오형수(전주) 예비후보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심상정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10년의 미래를 여는 선거이며 극심한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해결할 새로운 정당 체제를 만드는 선거”로 규정하고 “가장 확실한 대안은 정의당과 민주당의 경쟁 체제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탄핵 이후 어떠한 성찰도 없이 미래통합당으로 간판만 바꾸고, 호남의 낡은



심상정(왼쪽) 정의당 대표와 정의당 전북도당 관계자들이 20일 전북도의회 입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수수세력들은 호남민심과 무관한 민주통합당을 만들고 있다. 민주당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에 기대고 집권 포만감에 젖어 국민들의 기대를 외면하고 있다”고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이유를 들었다.

심 대표는 정의당의 전북 살리기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그는 “정의당 그린뉴딜 경제정책의 핵심인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산업을 확대해 전북을 그린뉴딜의 랜드마크

로 만들겠다”고 밝히고 “새만금 수질 관리를 위한 해수유통과 하구둑 개방, 국립공공의대 설립, 장점마을법과 남산법 제정 등을 실현해 내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새만금사업과 관련해 지난 20년간 정치권이 전북도민에게 사기를 쳤다며 근본적인 수질개선 등을 시작으로 정의당이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내도록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심상정 대표는 “전북에 민주당 국회

의원 한두 석 더 늘어난다고 전북정치가 바뀌지는 않지만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전북정치와 대한민국 정치가 바뀌게 된다”며 “지역에 출마하는 후보들을 지지하고 또 하나의 후보인 정의당을 선택해 달라”고 끝까지 호소했다.

그 뒤로, 심상정 대표 등은 전북도의회 앞에서 야의 퍼포먼스를 통해 전북에서의 승리를 다짐했다.

/김진성 기자

“대구 신천지교회 폐쇄조치보다 더 강력한 대책 필요 수도 있어”

문 대통령,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과 통화서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권영진 대구시장과 통화를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상황을 청취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15분 동안 통화를 갖고 “정부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코로나19 대응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대구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윤재관 부대변인이 출입기자단 메시지를 통해 알렸다.

이틀 동안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48명이 발생하면서 지역 사회로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날 통화에서 권 시장은 대구시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잘 챙겨보겠다. 대구 시민들이 불안해하실 것 같다”며 “대구시에 빠르게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 중앙 정부의 지원과 방역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해 달라”고 했다.

또 “어려움에 처한 대구 시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조기 종식을 기대하며 그때까지 시장님과 대구시의 고민을 함께 나누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과의 통화도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격려와 함께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너무 고생하셔서 그동안 일부러 전화를 자제했다”



모든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대구시 차원에서도 신천지교회(31번째 환자가 다닌 교회) 폐쇄 조치를 취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지만, 뭔가 조금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그런 대책을 빨리빨리할 수 있게 대구 쪽 문제는 빠른 대응을 보여주십시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민약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늘 수고가 많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지금까지 잘 대응한 게 질병관리본부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새로운 양상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새로운 과제가 된 상황이다. 그러나 잘 해주십시오라 믿는다. 질병관리본부 관리자들에게도 격려 말씀 전해달라”고 요청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이 강조하신 내용은 결국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소통”이라며 “발빠른 조치, 신속한 대응을 주문하셨다”고 부연했다.

/뉴시스

4·15 총선 예비후보자 이모저모

고상진, 대안신당 도당 창당준비위원장 활동

대안신당 고상진 예비후보(익산갑)가 대안신당 전북도당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됐다.

고상진 예비후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되는 시점에서 창당대회를 갖게 돼 송구스럽다”면서 “착오면서도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말했다.

또 “김대중 정신을 이어받은 호남중심 적통 대안신당의 전북도당이 창당되는 점은 나를 의미 크다”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오만불손하고 무능한 여당을 심판하고 갈수록 어려워지는 민생을 회생시키기 위해 대안신당의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오는 22일 익산시 유스호스텔 2층 회의실 창당대회를 연다. /특별취재반



황세연, 민주평화당 소속으로 출마 공식화

도서출판 증원문화 대표인 황세연씨가 민주평화당 소속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익산갑 지역구 출마를 공식화했다.

20일 황세연 예비후보는 익산 시청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시의 꿈을 이뤄내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며 “그 동안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이유는 정당 민주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익산은 남산 폐석산과 장점마을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를 잘 해결하면 환경문제를 수출하는 도시로 갈 수 있다. 당선되면 특별법을 만들어 재난 수준에 준하는 방법으로 이를 해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남·북에서 왕도가 있는 곳은 익산 뿐이다. 익산을 백제의 문화의 꽃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히며 “익산역 복합센터를 조성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특별취재반



김성중 “민주 후보자간 토론회 다시 제안”

더불어민주당 김성중 예비후보(익산을)는 20일 “상대후보가 선거법상 후보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 심사를 통과했지만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을 경솔하게 수용한다”며, “익산을 지역 민주당 예비후보자간의 정책토론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성중 예비후보는 이날 “7대 실전 전략을 통하여 살기 좋아 사람이 모이는 도시, 전라도 3대도시 익산의 정체성을 견고하게 세우겠다”며,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익산 이전 추진, 자동차 자율주행 시범도시 선정과 대형 식물원 조성, 유라시아 철도 중심 교통도시 건설, 생활체육의 도시, 항공스포츠 등 육성, 국제식품 문화 도시 육성, 드론산업의 메카로 추진 등 공약을 제시했다.

/특별취재반



민주 전북 공천배제 예비후보들, 재심 청구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공천배제 예비후보 당사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하고 나섰다.

김춘진 예비후보(김제·부안)는 20일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 김제·부안지역 단수공천 결정을 철회하도록 재심을 요청하고, 당원과 유권자의 지지를 제대로 물 수 있도록 경선의 기회를 부여해 주기를 보도자료를 통해 촉구했다.

고종운 예비후보(정읍·고창)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공천 심사결과가 답답이 되지 않는다며 심사결과와 공개요청과 심사결과인 단수공천이

아닌 경선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고종운 후보와 같은 지역구인 권희철 예비후보도 중앙당 공심위의 후보탈락이 부당하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이날 권 예비후보는 “1988년 민주당에 몸담아 3번의 민주당원 참출에 헌신했고 4년 전부터 주민들을 섬기며 소통해 왔지만 문재인 정부의 최고 가치인 공정한 기회를 박탈당했다”면서 “이번 단수후보 선정은 중대 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언론의 보도와 중앙당의 특별조사 내용과도 반대되는 결정이며 여러 사건들로 인해 최근 크게 요동쳤던 민심의 동향도 살피지 않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

